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금강계단 돌며 일불제자 본분사 다짐

공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0.18 11:28 | 호수 3688 | 댓글 0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8일 간의 전 일정을 회향하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 섰다. 화주 자승스님 발에 18일 간의 고된 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8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시작해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한반도 남쪽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이었다. 5개 광역자치체와 12곳 기초자치체를 지나며 삼보사찰을 포함한 9개 사찰을 지났다. 누적 이동 거리 423km, 1077리를 150여 명 순례단이 오직 두 발로 걸어 이뤄낸 벅찬 순간들이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기치로 가는 곳곳마다 예기치 않은 현대 속 한국불교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인 10월18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울산을 출발해 23km를 걸어 마지막 삼보사찰인 통도사에 도착했다. 비바람과 추위를 헤치고 구법의 천리길을 걷는 동안 순례단은 더 뽕뽕 뭉쳐 하나가 됐고, 모두의 바람대로 순례의 원만 회향을 이뤄냈다. 통도사에 들어서는 순례단원들의 이름 하나 하나가 호명될수록 얼굴엔 가슴 벅찬 보람이 스쳤다.

마지막 삼보사찰인 통도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지종가 불보종찰이다.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부처님 머리뼈와 어금니 등 불사리 100과를 각각 통도사, 황룡사, 태화사에 봉안했다. 자장율사는 진신사리를 봉안할 목적으로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승가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이른 새벽 추위와 싸우며 통도사에 도착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대중의 현대 속 일주문에 들어섰다. 대웅전을 지나 부처님 법신이 모셔진 금강계단을 맨발로 올랐다. 18일 간의 기나긴 여정이 여기저기 찢긴 상처와 부르트 발에 고스란히 새겨 있었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



짜장에 진심인 사람들...이들의 정체는? Clas...

포토뉴스



색션별 최신기사

"SNS어 뉴스



불교신문TV

짜장

짜장에 진심인 사

많이 본 기사

- 1 [삼보사찰 천리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불교계 매도?
- 10 관중 없는 비디



경기도
예술공
03'

최신뉴스

- [문화시] '함께' 했기
- [찰나의 화두] 봉천
- [사회복지사 편지] <
- [원혜스님의 아름다
- [수미산정] 작지만 <
- [천수천안] 녹색사찰
- "대학발원이 곧 견학
- [사설] 개막일 손꼽
- 참선지도사 명상지!
- 조계종 문화부장 성

금강계단은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곳으로 승려가 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수계의식이 이뤄지는 상징적인 곳이다. 순례단은 부처님 법신이 모셔진 금강계단 불사리탑을 세 번 돌며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린 뒤 다시 한번 부처님 길을 따라 고행 길도 서슴치 않는 일불제자로서의 본분사를 다짐했다.

이어진 회향식에서 회주 자승스님은 주지 현문스님에게 상월선원 결사 정신이 담긴 죽비를 전달했다. 현문스님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와 미래를 향한 등불이며 한국불교의 힘찬 발걸음이 될 것”며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3년 간의 대장정을 이어온 회주 자승스님 원력과 참가 대중의 발심으로 이룬 순고한 구법의 여정이자 값진 인연”이라고 덧붙였다.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은 직접 몸을 부딪치며 수행해온 순례단을 치하하는 법어를 내렸다. 성파스님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다리의 힘을 모르고 물의 수평을 재보지 않으면 길고 짧음이 나타나지 않듯이, 만행결사를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은 다르다”며 “아낌없이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고의 수행 과정을 겪어 훌륭한 결과를 이룬만큼 이금 이 자리이타의 마음을 새겨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향식을 마지막으로 순례단원 진오스님이 천리순례단을 대표해 부처님 전에 회향 발원문을 읽는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고 이르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저희는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함 불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깃발을 중생계와 허공계에 회향하오니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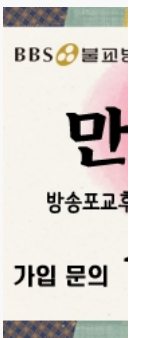
마지막 삼보사찰인 통도사로 향하는 길, 추위 속 새벽 예불을 하는 순례단.

종단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 국회 앞 1인 ...
전국 해인총림 해인사, 개산 1219주년 역대조...
사회&국제 불교활동가지원기금 '제18회 불교...
인물 "대학발전이 곧 건학이념 구현, 불교미래 ...
대중공사 [문화시] '함께' 했기에 의미가 크다
수행&신행 참선지도사 명상지도사 자격시험 ...
문화 조선왕조실록이 돌아올 때까지...
기획&연재 관중 없는 비대면이지만 생명나눔 ...
출판&문학 지율스님 태아영가 천도재 30년 ...
학술&문화재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이영진...
복지&상담 병원진료에 함께 갈 '시니어 돌봄...



첫 종단본 《불교성전 - 종경 법어, 홍우준 초기정진, 대승경전, 산에 불교 문맥에 걸려온 대련 부처님 발원에 함께 읽다!

법공양 (기획PR)





통도사로 향하는 순례단.



갑자기 찾아든 추위로 녹록치 않은 여정에도 마지막 삼보사찰을 향하는 순례단 행렬이 끝다.



통도사로 들어서는 회주 자승스님과 주지 현문스님.



회주 자승스님과 주지 현문스님이 통도사 금강계단을 돌고 있다.



순례단의 소개를 마친 후 지원단이 소개되자 단체로 일어나 인사를 하고 있다.



주지 현문스님이 회주 자승스님에게 전달 받은 축비를 치고 있다.



방장 성파스님이 순례단을 치하하는 법어를 내렸다.



순례단을 대표해 진오스님이 회향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18일 전 일정을 원만 회향하고 금강계단 앞에 섰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도는 회주 자승스님.



금강계단 참배 후 열린 회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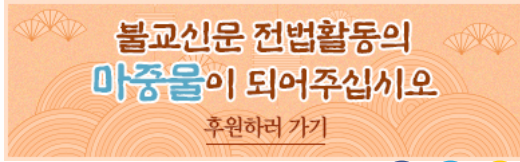
통도사 금강계단 참배를 마지막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이 마무리 됐다.

통도사=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② “우리 모두가 부처…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길 위 수장의 어깨.. 함…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② ‘적극적 포교 공세’…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일…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고 50년…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떨과 평생 한번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은 총무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깨달음 얻…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하며…무…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미를 다시…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비 넘어…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 긴장 속 호국성지 도…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① 달라지고 있는 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고 물집…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갈…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안…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다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사 참…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
- L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새 운동…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